

계양전기(주), 중·동남아에 DC모터 수출 증가

계양전기(주)(대표 : 이상익)가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대한 DC모터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

계양전기(주)는 최근 중국의 자동차총공사와 연 20만대 규모의 파워 윈도우 모터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또 말레이시아의 레규레이터 업체에 연 15만대 규모의 파워 윈도우 모터를 납품하기로 했다.

계양전기(주) 관계자는 “중국과 동남아 자동차 시장이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크라이슬러 스즈키 등 해외선진 업체들이 속속 진출하면서 매년 30% 이상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자동차용 DC모터 수출 물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계양전기(주)는 중국의 자동차 시장과 전동공구 시장 공략을 위해 조만간 중국 현지 전동공구 공장을 준공할 계획이며, 중국을 동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방침이다.

LG전선(주), 고부가부품 집중 육성

LG전선(주)(대표 : 권문구)은 전자부품 사업의 대폭적인 제품구조 전환과 신사업의 조기발굴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해외 선진시장에 영업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LG전선은 가전용 위주였던 커넥터 사업을 휴대폰, LCD용 고부가 제품의 개발·판매까지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품구조의 전환을 통해 영국(휴대폰), 대만(LCD), 일본(CD-ROM) 등 해외 선진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리튬 이온전지의 핵심부품으로 과전류의 흐름을 방지하는 전기회로 보호용 ‘폴리머 스위치’를 기존의 원통형 제품에서 향후 시장전망이 밝은 2차전

지용 각형(角形) 제품으로 교체, 올 6월말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99년에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반도체 패키지 생산시, 리드프레임의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재료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반도체용 접착필름’을 추후 수요물량 증가에 대비해 올해 안에 양산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LG전선은 이와 같은 사업확대와 강화를 위해 2002년도까지 순수 R&D 부문에 450억원, 부품 소재 사업에 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 부품 사업부문의 매출목표액을 작년보다 50% 성장한 1천300억원, 해외매출을 작년보다 85% 신장된 3천만달러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주)케이디파워 제철산업과 아몰퍼스 전력용변압기 전략적 제휴 체결

(주)케이디파워(대표 : 박기주)가 고효율에너지기
자재 전문 생산업체인 제철산업(대표 : 박종태)과
전력용변압기 분야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로 양사는 제품에 대한 시장확대 및 시
장점유율을 증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번에 채용기로 한 제철의 아몰퍼스변압기의 주
요 구성품인 철심의 경우 철, 붕소와 규소의 혼합물
을 용융한 후 급속 냉각시켜 불규칙한 원자배열 구
조를 갖는다. 하지만 이번 제철의 변압기는 비정질
자성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규소강판을 사용

한 변압기보다 무부하손(철손)을 75~80% 절감시킨
에너지절약형 신기술 제품으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한편 케이디파워의 한 관계자는 "올해 출시되는
신버전의 제품에는 전력효율 향상과 전력비 절감 기
능을 더욱 보강하여 타제품과의 월등한 차별성 부각
시키는 한편 '지능형변전실' 분야의 선두주자라는 자
부심으로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먼저 앞서서
반영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수배전반의 최고기
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케이디파워 필리핀 경전철 사업 참여 자격 획득

전력벤처기업인 (주)케이디파워(대표 : 박기주)가
필리핀 국영 경전철사업에 참여한다.

케이디파워는 최근 필리핀 경전철사업단으로부터
사전 자격심사를 통해 필리핀 국영 전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케이디파워는 필리핀 경전철사업 중 지능형 MCC
P/L부문에 우선 참여하게 되며 1차분 50만불에
대한 수주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경전철 사업은 필리핀의 국책사업으로
향후 8년 동안 순차적으로 약 500만불의 시장선

점이 가능할 것으로 케이디파워는 전망하고 있
다.

케이디파워의 지능형 MCC는 케이디파워가 자
체 개발한 신제품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무인운전
과 제어시스템, 획기적인 에너지절약 시스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특히, 제품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미국의
SQUARE, 독일의 MOLLER 등 외국의 우수제
품과 견줄 수 있어 최종 낙점이 가능할 전망이다.

(주)케이디파워는 지난 '97년 인도네시아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 이래 꾸준한 시장개척 활동을 벌여왔으며, 지난해에는 중국시장에 진출해 지능형 디지털 계측제어기를 500만대 이상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특히, 수출선 다변화를 추구해 “미주와 유럽지역에도 수출계약이 성사단계에 이르는 등 괄목

할만한 수출실적 달성이 기대된다”고 케이디파워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주)케이디파워는 전제품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이를 응용한 실시간 전력관리시스템의 수출기반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LG산전(주), 대표이사 김정만씨 선임

LG산전은 제27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김정만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했다.

신임 김정만 LG산전 사장(54)은 엘리베이터·자판기사업 매각 등 LG산전의 굵직한 사업구조

조정을 성공리에 마쳤을 뿐만 아니라 보유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LG산전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공로가 인정돼 이번에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일진그룹의 구조조정 대대적 추진

전기·통신·소재부품 산업분야 등 9개 기업을 거느린 일진그룹(회장 : 허진규)의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일진그룹은 수익성 있는 업종을 위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비롯, 인력 및 직제의 슬림화를 진행중이며 4월말까지는 구조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모기업인 일진전기공업(대표이사 : 홍순갑)은 지난해 적자기업인 일진전선을 흡수·통합한데 이어 중복된 직제 및 인력을 재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명간 10명의 임원진 중 5명이 명예퇴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주총회 이후 새로운 영업전략이 발표될 예정이다.

주주총회를 개최한 (주)일진을 비롯, IMT-2000의 디스플레이장치인 고부가가치의 유기EL 사업에 뛰어들던 일진다이아몬드 등 다른 그룹사들도 다음달까지는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인 집중 마케팅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일진그룹은 알미늄 압출과 통신케이블, 정보통신분야를 담당하는 (주)일진과 전력기와 전선등을 생산하는 일진전기공업(주),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와 건설을 담당하는 일진다이아몬드(주), PCB용 전해동박을 생산하는 일진소재산업이 있으며 이밖에도 일진경금속, 일진기술금융, 일진중공업, 일진나노텍 등의 계열사가 있다.

佛 넥산, 대성전선(주) 경영권 인수

대성전선(주)(대표 : 양시백)은 지난해 8월 프랑스 알카텔그룹 계열인 넥산스퍼티시페이션사와 M&A(기업인수합병)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423억원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로써 넥산스퍼티시페이션(옛 케이블랙)과의 인수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경영권을 넘겼다.

대성전선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8월23일 알카텔 전력케이블 전문업체인 넥산스퍼티시페이션 사에게 3자배정 방식에 의해 1천800만주(액면가 500원)을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넥산스퍼티시페이션은 이번 증자로 대성전선 지분

50% 보다 1주 더 많은 51%의 지분을 확보했다.

대성전선은 현재 모기업인 충북 청원공장을 비롯, 음성의 대영전선과 해외에 현지투자한 베트남 전력·통신공장, 중국 전력케이블공장, 탄자니아 현지 법인 등 계열사를 두고 있다.

넥산스퍼티시페이션은 알카텔 자회사로 전력선, 항공우주선 및 관련시스템 부문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 3위의 전선업체다.

대성전선측은 이번 인수대금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방향등과 관련,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의업체 진로산업 2년만에 흑자전환

케이블 전문업체인 진로산업(대표 : 주상훈)이 2000년 결산에서 당기순이익 10억원을 실현, 지난 '98년 화의개시 후 2년만에 흑자전환 했다.

이 회사는 화의개시부터 2년에 걸쳐 저수익 사업부문 철수, 인력감축등 구조조정을 통해 이같은 흑자전환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로산업은 또 그동안 15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로 최신 고무가류라인(SSCV라인) 도입, 광케이블 연간 60만fkm 증설, LAN(근거리통신)케이블 생산, 주력설비합리화를 이뤄 경영 정상화 기반을 다지는데 한몫했다.

진로산업은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선박용전선, 광케이블부문에서 실적이 호조, 수익성 우선의 영업을 펼치면서도 전년대비 17% 신장한 1천5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재무면에서도 차입금 200억원 상당의 출자전환과 125억원의 금융채무 환매로 2000년말 자본총액이 108억원에 달해 그동안의 자본잠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진로산업측은 올해 현재 조선경기의 호황으로 3년치 선박용전선 물량을 확보한 데다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따른 광케이블 및 LAN케이블 수요 증가도

예상돼 지난해에 이어 전선부문에서 30% 신장된 2 천1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일진전기공업(주), 초정밀 전력량계 국산화

일진전기공업(대표 : 홍순갑)은 지난 '98년 0.2급 이하의 초정밀 전자식 전력량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선도업체다. 일진의 초정밀 전자식 전력량계는 지난 '96년 4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총 20억원을 투자한 연구개발의 결과로 이뤄졌다.

이 제품의 특징은 기존의 전력량계가 측정정밀도 기준으로 보통급(편차 -2~+2%)인데 비해

0.2급 이하의 초정밀 산업용 전자식 전력량계라는 점. 크기에 있어서도 세계 최소에 가깝다. 사용 온도범위도 섭씨 영하 40에서 영상 85도로 기존 제품에 비해 사용범위도 훨씬 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전화선 전력선 RF모뎀 등을 내장하고 있어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검침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신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한전선(주), 통신망 임대 합작사 추진

회선임대업체인 미국 레벨3사가 한국에 진출한다.

레벨3는 전선업체인 대한전선(대표 : 이청용), 자회사인 읍토매직(대표 : 김정훈)과 합작, 통신망 임대사업을 전담하는 벤처기업 레벨3(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3사는 국내 인터넷 및 커뮤니케이션 시장을 겨냥, 광대역서비스 및 네트워크를 공급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에 설립될 합작회사의 자본금은 242억원으

로 대한전선·읍토매직과 레벨3사가 각각 51대 49의 비율로 투자하고 대한전선이 경영권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회사는 한국을 일본·홍콩·대만 등 주요 북아시아 시장과 연결하고 아시아 시장을 미국·유럽 등과 연결할 국제 해저케이블 시스템인 「타이거」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에 조만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국전기공업(주), 우량기술기업에 선정

발전기 전문 제작 업체인 보국전기(대표 : 광종보)가 최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우량기술

기업'에 선정돼 앞으로 5년간 기술개발자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보국전기는 최근 '엔진구동 유도작



용 아크 용접발전기'를 개발, 우량기술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제품은 회전자에 코일 전선이 없고 고정자에서 직접 유도하는 발전기로 부품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원가는 절감하고 성능은 향상시킨 첨단 제품이다.

보국전기는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5점 가산 ▲특별지원 중소기업 추천대상 우선지

원대상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사업 가점부여 ▲기술지도사업 우선지원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술신보등을 통해 집중적인 금융지원도 받게 된다.

보국전기 광기영 부사장은 "앞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이 제품을 무기로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품은 NT마크 획득을 준비중이다.

전기연구원, 첨단핵심기술 실용화 주력

한국전기연구원은 올해 사업을 전기분야 기술혁신을 선도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연구 및 시험 평가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며,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통해 산업체에 되돌려 주는 내실 있는 연구소로 발전한다는 기본 방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이를 위해 경영목표와 관련 있는 전문분야를 선택적으로 집중지원하고 산업계에 파급효과가 큰 첨단핵심기술 및 공공복지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또 핵심기술을 개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공통애로기술 및 수요중심의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전기공업계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기기 성능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국제규격 시험설비를 확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함과 동시에 기술허부구조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한다는 것도 올 한해의 사업목표다.

이를 위해 한국전기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을 NEW(New, Environmentfriendly, Wise) 전력시스템 핵심기반기술 개발사업, 산업전기 및 응용기술 개발사업, 차세대 전기에너지응용 및 소재 기반기술 개발사업, 전기시험 평가사업 및 기술지원사업 등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또 500MVA 단락시험설비 운영사업과 전자기 환경장애 실증평가 및 기술지원사업, 국가 기간시설물 전식대책 지원사업 등 일반사업과 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 정부부처 연구개발사업, 한전·기업체 수탁연구사업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NEW 전력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21세기 국가 전력망을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구성하고 전력을 효율적·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력시스템 운용핵심기술과 통합시뮬레이터 및 제어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21세기 첨단기술분야인 환경기술 개발을 지원, 산업전기 및 산업계의 응용기술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LG전선(주), 구미공장 증축

LG전선(주)은 경북 구미시 진평동 643번지에 지상 3층 공장을 증축한다. 건축면적 9천7백91m², 연면적 1만2천9백26m² 규모의 이 공장은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조로 이뤄졌다. 창조종합건축사무소가 설계를 맡았으며 건폐율 22%, 용적률 24%를 적용했다.

(주)조흥전기산업, 로봇전용 인버터형 아크용접기 개발

(주)조흥전기산업(대표이사: 최백규)이 '로봇전용 인버터형 CO² 아크용접기(모델명: RB-350II)'를 개발, 본격 시판에 나섰다.

기존의 용접기는 수작업 전용으로 제작돼 로봇과 연결하려면 반드시 인터페이스 회로와 같은 별도의 제어장치를 설치해야만 했으나 조흥전기가 선보인 신제품은 인터페이스 회로를 용접기 내부에 포함시키는 등 불편함을 크게 줄였다.

조흥전기는 또 220V, 380V, 440V 겸용으로 설계, 배전 전압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토록 했으며

제조회사나 모델에 상관없이 국내외 어떤 로봇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였다.

조흥전기 관계자는 "국내에 수입·판매되고 있는 아크 용접 로봇은 1년에 500여대 정도"라며 "신제품의 출시로 연간 20억원 이상의 수입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흥전기는 이외에도 일반 인버터 직류아크 용접기보다 아크 경직성을 개선한 'IGBT 인버터형 소형 직류아크용접기'를 최근 독자 개발한 바 있다.

LG산전(주), 산업통신용 통신 모듈 개발

LG산전(주)은 산업용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프로피버스(Profibus)-DP 산업용 통신 모듈 4종 개발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판에 들어간다.

프로피버스-DP는 산업용 네트워크의 일종으로 생산 현장에서 PLC(논리연산제어장치), 센서, 모터, 밸브, 로봇 등의 기기를 제어하는 통신기이다.

이번에 LG산전(주)이 개발한 프로피버스-DP는

디지털 방식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통신방식에 비해 대량의 신호를 원거리까지 전송할 수 있으며, 케이블 등 전송 기자재도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1/5정도로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또한 빠른 통신속도(9.6kbps~12Mbps)로 주변 장치와 연결시 비용 절감 효과가 커 공장자동화시스

템으로 널리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산전(주)은 이번에 개발한 프로피버스-DP 모듈이 자사의 글로파(GLOFA) PLC뿐만 아니라 프로피버스-DP를 채택한 타사의 자동화 기기들과 접속 및 제어가 가능해 국내시장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알토, 디지털 전자기술 접목 조명기구 개발

LED전구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조명기구가 국내에 선보인다.

(주)알토(대표:허승효)는 LED전구와 디지털 전자기술을 접목한 조명기구를 '2001서울리빙인테리어페어'에 출시했다.

또 알토는 본사내 위치한 신기술사업부를 분리, 5월중 '알텍'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LED 조명기구 영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167만여가지의 색상 표현이 가능하며, 일반 가정에서부터 인테리어, 건축, 무대조명

까지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조명기구 외장파 시스템은 실리콘 벨리의 시스템 전문회사 칼라키네틱스사와, 소프트웨어 및 IC 칩을 포함한 반도체부품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알토 허승효 사장은 "미래의 조명이라 할 수 있는 LED전구를 이용한 이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부터 경관조명까지 사용범위가 광범위하다"며 "이 조명기구를 통해 새로운 조명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이시스(주), DIGITAL 누전경보기(ELD) 국내 최초 개발

전력보호계전기 생산 업체인 디이시스(주)(대표:이창근)에서 DIGITAL 누전경보기 집합형(D2K-LD형)을 국내 최초 개발 완료하여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관계 기관에 형식 승인 및 국내 신기술 마크 NT, KT등 인증을 진행중이다.

금번 개발된 누전경보기(ELD) DIGITAL 제품은 2000년 1월부터 개발에 착수 약 1년간 상당액

의 개발비를 투자하여 당회사 연구소에서 개발 완료된 제품으로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및 인명, 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는 소방법을 근거로 개발된 누전경보기로서, 그동안 디이시스(주)에서 ANALOG, MICOM TYPE을 최초 개발하여 20년간 국내 산업용 건축물 및 산업플랜트 등에 약 20만대 상당의 수량을 공급 설치, 국내 최대 누전경

보기 생산 업체로 국내 시장 95%를 점유함으로써 국내 업체로서 최고의 품질신뢰도의 명성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신규 개발된 DIGITAL 누전경보기 제품은 산업 발전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증대되고 그 배선이 복잡하여 짐으로서 전기로 인한 재해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누전경보기의 기능을 향상 시킴으로서 수요자의 누전 감시 기능을 UP GRADE 한 제품으로서 그 특징은

1. 485 통신 기능을 부가하여 각 부하의 누전 상태를 중앙 감시 시스템에 통합 관리하며
2. 기기 전면에 LCD DISPLAY 화면이 부가되어 각 부하의 누전 상태를 현장에서도 정밀 점검 할 수 있으며
3. 기기 한 대로 8회로에서 32회로까지 4종류의 MODEL을 선택함으로써 중전 최대 10회로의 모델을 다양화 하여 설치 면적을 최소화 하

였으며

4. 기존에 설치된 경보기와 교체 작업이 용이도록 기존 ZCT와 조합 사용이 가능함으로서 개 보수 비용이 절감 될 수 있다.

또한 기능 설치 운영면에서 현재 변전소 및 배전소의 무인화 및 원격에서 운용 감시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서 최근 DIGITAL 제품의 고기능화 및 정보 전송 간소화, 제어케이블 축소화로 정밀도 향상, 연산처리 능력 향상, 휴먼 인터페이스 향상 등으로 차세대형 배전감시에 DIGITAL 누전경보기 제품이 적용됨으로서 그 수요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한 디시시스(주)의 DIGITAL 누전경보기(ELD) 확대 적용으로 각 건축물의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및 인명, 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보호하는데 더욱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